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을 기해 전국에서 동시 취임함으로써 민선4기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1995년에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1년 간의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지방자치의 실행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온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진화를 위한 적응과 변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민선4기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를 새겨보고자 함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 문제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권한 부족,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정 이양을 둘러싼 충돌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 전체 세수의 20%에 그치고 있는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



불자 세상보기

김 병 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

체들에 대한 권한이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 수준 제고의 노력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공무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지자체건 간에 행정의 질과 수준은 공무원의 인적 자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은 지자체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업가적 리더십과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의 의

지, 지역내 구조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의 의지 등은 지자체 리더십의 핵심적 요건들이다. 지역 내의 뿌리깊은 지연, 학연을 떨리려는 중립성은 특히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자질과 의지, 그리고 실행력 또한 빠질 수 없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민주주의적 의식, 업무 전문성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체장들과 의회의 협력과 견

제 관계가 충실히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중앙정치의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긴 결과가 되었다.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공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4개 기관 모두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한 정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단체장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소환제 등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나, 효과에 비해서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너무 클 수 있는 제도인 만치 현실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에 필수요건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있어서도 지금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있는 역할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이기에 민선4기를 통해 각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안적 견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불자의 눈

요즘은 사찰에 가면 오래된 탕화는 똑같은 크기의 사진으로 대체되거나 새로 제작한 탕화를 대신 걸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묘문화제의 도난 때문에 생긴 씁쓸한 실상이다.

도난문화제의 증가는 도난 문화제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현등사 사리기에 대해 원 소유자인 현등사가 현 소장자인 삼성미술관 리움과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고,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도 유사한 문제로 백양사와 불교미술박물관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도난문화제에 대한 소유권 공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하나는 공소시효이다. 문화재를 출품한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선의취득이다.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취득한

도난문화제 '억제'하는 법률은?

사람이 장물인지 몰랐다면, 민법 제 249조에 의해서 선의취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법 조항만으로 문화제 도난을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없는 일이다.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양사 극락회상도의 경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도난문화제정보란에도 검색되지 않는 허술함을 보였다. 따라서 도난문화제를 전달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요망된다. 문화재청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고, 차후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도난문화제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도난문화제의 유통을 종래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어렵게만 하면, 도난문화제는 숨어버리거나 외국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으로 유출될 바에는 우리나라에서 타격태려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한 쪽을 강하게 억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도난문화제를 억제하는 법률은 총체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이루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기사일

국방의 안전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모든 백성들의 공포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참모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와 단 · 중 · 장거리 등 모두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미간 양자 대화가 거부로 인한 시위, 6자회담 복귀를 앞둔 대미 협상카드, 이란 수출을 위한 미사일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발사 목적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것이었다' 할 지라도 세계 평화를 담보로 한 안보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독립기념일 경축시간에 발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질 때 어선은 조업중이고 여객기는 운항중이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의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이 사태를 빌미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미사일로는 결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간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력으로는 평화정착이 요원하다. 오직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원우(우계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어린이 범죄 보는 곳 없나요?

아이 들을 키우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 범죄에 보고하고 싶은데 주위에 어린이 범죄를 하는 곳이 없네요.

저 자신도 청소년 시절 불교 학교를 다니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고 지금까지 불교를 나의 종교로 믿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어린이회 선생님이 활동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어린이회에 보내리라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어린이 범죄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안타깝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사찰에 일일 범죄에 동참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 범죄도 잘 모르고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동참하신 여러 대중에게도 미안해서 지금은 집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사찰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린이 범죄가 있어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범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시절부터 어린이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뛰어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불자로서의 삶을 평생동안 살아갈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부터 어린이회, 중등부, 고등부 등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게 만들지만 불교는 아직까지 이런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어린이범죄를 하면 돈만 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교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영(경북 구미시 도계면)

고마운 군부대 내 포교계시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공동으로 7월부터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 계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도 부착해 부처님말씀을 전하고 있다.

휴가 나가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지하철 포교 계시판을 군부대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심리적 갈등과 유혹이 가끔씩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범죄에 가면 지도 법사나 스님들이 법문 해주는데 이에 의지해 갈등과 유혹을 해결하곤 한다. 그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주옥같은 말이나 글은 한사람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각인돼 군생활을 아니 더 나아가 평생을 의지하는 큰 등대가 되기도 한다. 포교 계시판이 더 많은 군부대와 사회의 그늘진 교도소 등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김영동(강원도 홍천군 화랑부대)

스님들의 사회참여 '눈에 띄네!'

요즘 스님들의 사회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다. 최근 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스코리퍼 축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하는 스님 1080인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스님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기톨릭 등 종단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종교환경회의가 얼마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교환경연대 예코부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이 동참했다고 한다.

이런 승가의 사회참여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기쁘다. 언제나 산중 불교, 처맛 자락 불교, 기복 불교라는 소리를 비난처럼 해대던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스님들이 수행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대승의 길은 아닐 것이다. 속세에 뛰어들어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자리(自利)에서 진일(濟他) 중생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더러운 진흙밭이라도 밟을 수 있다는 이타(利他)의 결의를 요즘 스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

권정은(서울 송파구 오금동)



14면 하단광고에서 이어집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지각스님 법하 원본
1. 먼저 죄송하구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에도 승적원부가 없었습니다
2. 아무튼 신규로 작성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것이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대희.

지각스님 법하
1. 먼저 죄송하구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에도 승적원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 무등스님 자료를 보면 2005.10.25일 법계품수 기록이 승적원부 법계란에 기록되어 있으나.
· 지각스님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승적원부가 아닌 승적입적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05.10.25일에도 승적원부가 없어 법계품수를 승적입적원에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아무튼 신규로 작성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것이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대희

사무국장 홍대희